

<조선백자> 어린이 활동지 교사용 해설

♣ 박물관 소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대학의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35년 4월 6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부산에 마련된 임시 캠퍼스인 필승각에서 박물관을 다시 열어 문화재를 보호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으며, 유엔군과 외교 사절단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의 본관에 다시 진열실을 마련하여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아 소장품을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있는 이 건물은 이화여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조선백자> 전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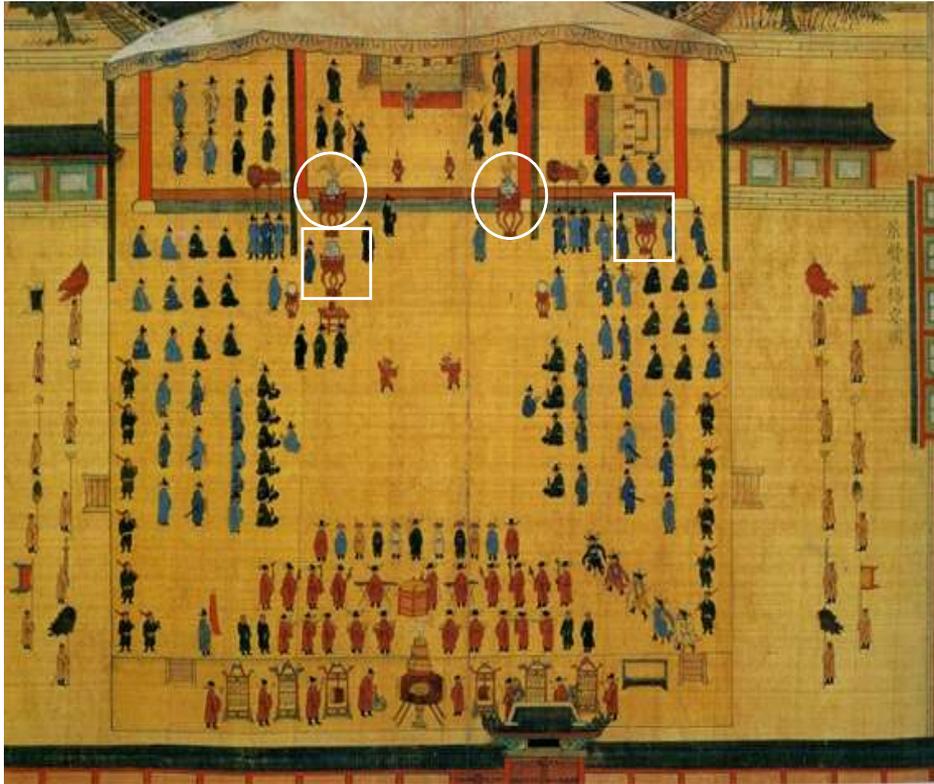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을 맞이하여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해 온 조선백자 중 600여 점의 도자를 1, 2층 전관에 걸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백자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 1층에는 왕실 의례용 기물과 명문 백자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조선왕실과 백자”, 조선인들의 출생과 죽음을 도자기로 살펴보는 자리인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그리고 조선시대 문인들의 가치관과 미감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인 “문인문화의 유행”,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제작된 백자가 전시되어 있는 “지방백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장수와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길상문이 시문된 백자들을 전시한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와 국보 107호 <백자철화 포도문호>가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는 감상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백자>전을 통해 500여 년간 조선이 추구했던 왕조의 이념과 상층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애호되고 실용되었던 백자의 풍부한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구름 속을 힘차게 날아다니며 여의주를 잡기 위해 발을 뻗고 있는 용의 모습을 표현한 문양을 '운룡문(雲龍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인데, 이 운룡문이 그려진 향아리는 조선시대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운룡문호가 몇 번 등장하는지 찾아보고 그림 속 상황을 통해 그 쓰임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 4번, 왕실 행사에서 꽃을 꽂거나(동그라미) 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였다(네모).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

조선 1720년, 비단에 채색, 보물 제638호, 43.0 X 66.5cm

● 미술 Tip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특별한 행사에 용 그림이 그려진 백자향아리를 사용했습니다. 백자 운룡문호의 용도는 조선시대의 행사를 기록한 그림을 통해, 꽃을 꽂아 장식하거나 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종의 환갑연을 그린 《기사계첩》 중 경현당에서의 저녁 잔치를 그린 그림을 보면, 왕의 앞쪽에 놓인 백자향아리에 꽃을 꽂아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탁자 위에 놓은 같은 크기의 백자 운룡문호에는 술을 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2] 아래 사진에 나타난 백자 향아리와 접시, 찻잔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한 백자 인형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그릇들은 실제 음식을 담았던 그릇은 아닌데, 이 백자들의 용도는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3. 무덤에 넣는 부장품

● 미술 Tip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믿었던 고대인들은 살아서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리기를 원해서 각종 생활용구와 함께 노비나 기르던 가축까지도 함께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를 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장의 문제가 커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명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명기란 죽은 자가 생전에 사용한 기구·인물·동물 등을 비슷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조선시대 명기는 왕실을 비롯한 일부 사대부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교적 의례품으로 주로 순백자이며, 그릇이나 인물상 등 여러 생활용기들을 작게 축소하여 만들었습니다.

[문제3] 왼쪽의 그림은 사당과 위패, 꽃, 과일 등을 그린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사당이 없는 집이나 집으로부터 먼 곳에 있어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러한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실에 전시된 이 그림 앞에는 조선시대 제사 때 사용한 제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 제례용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백자 기형은 아래의 예시들 중 어떤 것일까요?

정답) 4. 고족접시

● 미술 Tip

백자 고족접시는 문자 그대로 '高足', '다리가 높다'라는 뜻으로 기존의 접시보다 굽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제사에서는 음식을 접시에 담을 때 그 높이를 기록했을 정도로 음식의 높이가 조상이나 신을 높이 받드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행사의 주인공을 접대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제사에서뿐만 아니라 왕과 왕실 어른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의 상차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결혼 등의 특별한 행사에 주인공을 위한 상차림에 쓰일 정도로 애호되었습니다. 이는 현대까지 이어져 오늘날에도 제사나 돌상 등의 특별한 행사에 고족접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4] 위의 사진은 <문인문화의 유행> 전시실에 구현된 조선시대 선비의 방입니다. 방 안에는 종이를 담는 지통, 붓을 꽂는 필통, 물을 따르는 연적 등 백자로 만든 다양한 문방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중 소나무, 까치 등과 함께 그려져, 액운의 방지와 기쁜 소식의 전래를 의미하는 문양이 장식된 기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1. 호랑이가 양각되어 있는 지통



<백자양각청채 송호문 지통>, 조선 19세기, H. 16.7cm
호랑이는 그 용맹성으로 인하여 나쁜 것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강한 문양이다. 주로 까치와 함께 그려졌는데,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의 길조로 여겨졌다. 또한 소나무가 함께 그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는 기상을 갖고 있어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백자청화투각 연화문 원형 연적·필통>, 조선 19세기, H. 9.4cm
연꽃은 불교와 관련된 소재이지만, 진흙 속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의미 때문에 성리학을 지향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도 널리 사랑받았다. 주로 나비, 물고기, 물새 등 다른 동식물과 함께 장식되며, 다자손이나 삶의 즐거움, 집안악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 미술 Tip

지통(紙筒)은 두루마리로 된 종이나 편지지 등을 담고 보관하는 통입니다. 지통은 원형이나 각이 진 형태가 대부분으로 필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필통보다 높고 넓습니다. 필통은 자주 사용하는 붓을 꽂아 세워두는 통으로 붓통이라고 합니다. 형태는 각이 진 형태부터 꽃모양(花形)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문제 5] 십장생은 소나무, 구름, 산, 돌, 물, 해, 학 등으로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길상소재로, 고대로부터 회화, 조각, 공예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주 사용된 문양입니다.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실에는 이러한 십장생들을 장식소재로 한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에 해당하는 백자를 직접 살펴보고 이름을 적어보면서 어떠한 소재들이 십장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정답) 학(백자청화 운학문 접시), 사슴(백자청화 쌍록송문 호), 복숭아(백자 도형 연적), 거북이(백자청화·청채 구형 연적)



<백자청화쌍록송문호>, 조선 19세기
조선후기 십장생은 그림 뿐 아니라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도자기 위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10개 중 2-8개의 소재가 부분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소나무에 비해 학이나 사슴을 크게 표현하는 등 비례가 맞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백자도형연적>, 조선 19세기

복숭아무늬는 반도(蟠桃)를 상징하며 조선후기 도교 신앙의 확대에 따라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서쪽 곤륜산에 살고 있다는 여신 서왕모의 정원에 3천년마다 열린다는 반도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복숭아는 일상적인 그릇의 문양으로 자주 그려졌을 뿐 아니라 그 모양을 본따 연적, 잔, 투각 필통 등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복숭아모양 연적은 청화, 철화, 진사 등 여러 물감을 이용하여 가지와 잎을 표현해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 미술 Tip

조선전기 백자를 장식할 때는 왕실 행사를 위한 특정 문양이나 문인들의 취향이 담긴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문양을 그릴 때는 푸른색의 청화나 갈색빛의 철화, 붉은 빛의 동화 안료 등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청화 안료는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졌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화원이 주로 작업했습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왕실이나 문인 외에 부를 축적한 중인들까지 청화백자를 구입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중국 북경에서 값싼 청화 안료가 수입되면서 일상 그릇에까지 청화가 시문되었으며, 이와 같은 자기 구매자의 증가와 청화 안료의 보편화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자기가 유행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는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무늬인 길상문이 크게 유행한 시대로, 다양한 길상문의 표현 방식은 당시의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느낌과 상통하고 있으며, 신분을 초월하여 폭넓게 애용되었습니다.

[문제 6] 도자기에는 산수나 각종 동식물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문자까지도 문양으로서 시문되었습니다. 특히 목숨과 행운, 행복을 뜻하는 이 두 문자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안화되어 활용된 대표적인 길상 무늬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점선을 따라 쓰면서 이 문자들을 익혀보고, 이 두 글자의 음을 위의 네모 빈 칸에 써넣어 보세요.

정답) 수



복



<백자청화 수·복자문 접시>, 조선 19세기

'수(壽)', '복(福)'자와 같은 문자를 백자에 써넣는 수복자문은 조선후기에 매우 성행했던 장식문양이었습니다. 문양을 그릴 때는 접시 안쪽면의 가운데에 두 줄로 원을 그리고 장식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자청화 수복자문 유개발>, 조선 19세기, H. 17.1cm
정자(正字)체에 가까운 예서체나 해서체로 써넣던 수복자문은 점차 도안화 되었고, 때로는 원권 없이 글자만 시문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은 도안화된 수복자문이 뚜껑과 몸체에 시문되어 있습니다. 조선후기에는 합이나 발, 대접과 같은 음식을 담는 그릇에 사방으로 이와 같은 수복자문을 장식한 예가 많습니다.



<백자청화 초충문 접시>, 조선 19세기 말-20세기 초
문자와 초화문이 복합적으로 시문된 접시입니다. 그릇의 중심에 원으로 선을 그리고 그 안에 원으로 도안화된 '복'자를 장식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패랭이와 같은 초화를 괴석이나 풀벌레와 함께 그려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수복자문은 단독으로 장식되는 경우 외에도 다른 문양과 함께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 미술 Tip

길상의 의미를 지닌 문자 중에서는 특히 '수(壽)'자와 '복(福)'자문이 다양하게 도안화되며 애호되었습니다. 길상 문자를 공예품에 시문하는 풍조는 중국 명나라 및 청나라에서도 유행했으며, 조선에서는 후기부터 말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생산·소비되었습니다. 수복자문은 왕실을 비롯해 민간에 이르기까지 점차 널리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음식기와 문방구 등 다양한 기종에 장식되었습니다. 초서와 해서 등 정자(正字)체로 쓰인 것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생산되었고, 조선 말기에 이르면 전서체를 변형한 원형 혹은 장방형의 도안 수복자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 7] 아래 사진은 도자기 굽 부분의 파편 조각들입니다. 굽에 작은 흠 덩어리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흠 빚음을 굽에 붙였을까요?

정답) 2번, 여러 개를 포개어 구울 때 떼어내기 쉽게 하기위한 장치.



● 미술 Tip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질 때 가마 바닥에 자기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굽받침이 사용됩니다. 굽받침으로는 모래나 흙물 또는 흙으로 빚어 만든 받침 등을 사용했으며, 흙으로 빚어 만든 받침은 자기가 완성된 후 살짝 두드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오답노트

1. 자기를 사용할 때 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이다.

굽받침은 제작과정에서 자기가 가마 바닥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워낸 후에 굽에 굽받침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두드려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 제작과정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자기들이다.

위 사진의 깨진 자기 조각들은 자기를 생산한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제작과정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자기들입니다. 그러나 돌맹이 형태의 흙 덩어리를 굽에 부착한 까닭은 제작과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 문장은 질문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4. 굽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부착한 것이다.

굽받침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작 과정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부착, 사용되었습니다.